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짹짹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걸을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3.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꼰내음]
- 바깥일[바깸닐]
- 학력[항력]

- ① 중화
- ② 첨가
- ③ 비음화
- ④ 유음화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밭이 너무 넓으니?

- ① ㉠:[바슬]
- ② ㉡:[반만]
- ③ ㉢:[반]
- ④ ㉣:[바치]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킨나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렇게 하면 되?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곳에서 갓은 고생을 다 겪었다.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15.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④ 동해로 가는길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리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17.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을 써느고자 흐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흐니 울동 말동 흐여라

- 김상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듯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